



SUMMIT POINT

GOLF RES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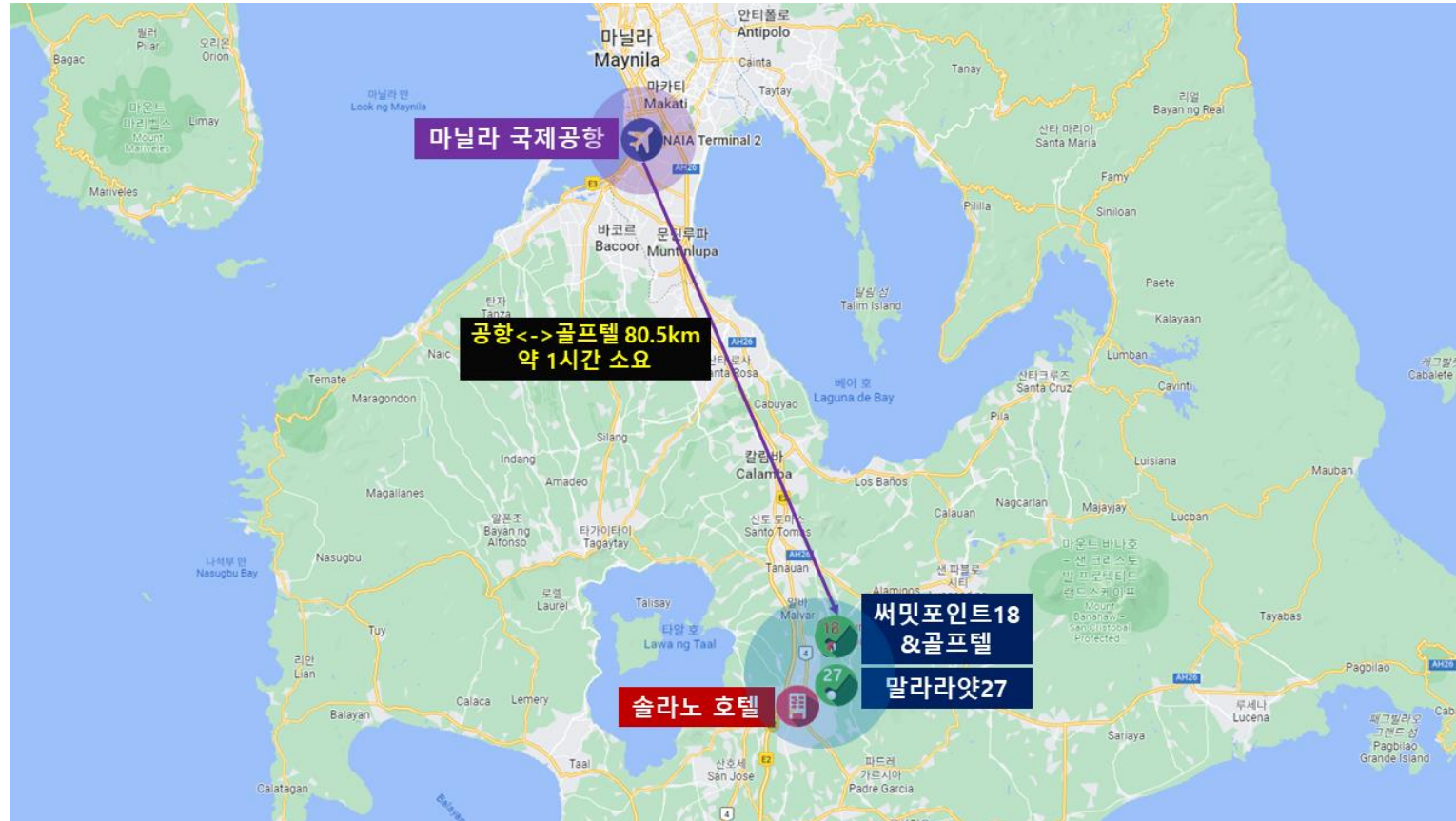


Summit Point Golf Club



- 코스설계 | 로버트 트랜스 존스2세
- 규 모 | 7,017Yard(Blue), 18Hole, Par 72
-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드라이빙레인지, 레스토랑, 락커, 한식당, 골프텔, 사우나, 프로샵 등
- 이동시간 | 마닐라 공항에서 약 80.5Km (약 1시간 소요)
- 고객평점 | 4.4 ★★★★★☆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80.5Km
차량으로 약 1시간 소요됩니다.



로버트 트랜스 존스2세가 전 세계 유명한 코스만을 재설계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다이나믹 코스



100여 그루의 코코넛 나무와 약 3,000여 그루의 과실수가 페어웨이를 장식하고 있는 써밋포인트C.C는 홀마다 업다운이 심한 페어웨이와 그린 주변에 각각의 모양과 높이로 설계된 벙커가 골퍼로 하여금 정확한 샷을 요구하는 골프클럽입니다.



해발360m 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 평균기온은 약18도~28도 유지하여
필리핀에서 라운드 하기에는 최적의 온도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 전체
코스 전경 또한 뛰어난 청정지역 골프장 입니다.



전체 18홀 챔피언십 코스로써 전세계 골프장 중 악명 높기로 소문난 18개 홀들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며, 코스난이도가 있어 매력 있는 코스라 감탄사를 자아내는 명품코스임을 증명합니다. 매년 PPGA(필리핀 프로 골프대회)가 열리는 골프장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풍의 고풍스러운 클럽하우스에는 레스토랑과 프로샵, 그리고
최신형 라커시설, 드라이빙 레인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모던한 감각을 살린 심플한 디자인

3.5성급의 편한하고 깔끔한 골프텔

골프
텔



마닐라 바탕가스 리파시티에 위치한 써밋포인트CC 안에 위치한 총 32개의 동일한 타입의 트윈 룸 객실을 갖춘 써밋포인트 골프텔은 한국인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골프텔로 한국 골프텔과 같은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WiFi, 케이블 TV, 미니 바, 안전 금고, 커피 메이커, 헤어드라이어, 슬리퍼 등이
구비 되어 있으며, 마지막날 무료 레이트 체크아웃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식당에는 다양한 한식 및 각종 음료와 주류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넓은 객실과 루프 탑 테라스 전망이 아름다운

특급의 편안함을 간직한 준 특급호텔

시내
호텔



마닐라 남부 바캉가스 리파시티 중심지에 위치한 준 특급 솔라노호텔은 레스토랑,
실내 바, 커피숍, 실내 바, 회의실 등의 편리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고 모던한 감성을 느끼게 하는 전 객실은 리파시티 최초의
특급의 편안함을 간직한 준 특급 호텔입니다.



무료 WiFi, 케이블 TV, 미니 바, 안전 금고, 커피 메이커, 헤어드라이어,
슬리퍼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주변 SM쇼핑몰과는 도보로 약 5분 거리, 써밋포인트CC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소요됩니다.



써밋포인트CC 모든 임직원들은 여러분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번홀: 세미놀 #7홀

이쁜홀인데, 그린앞에 길이50야드짜리 해저드가 있어요, 티박스에선 안보이니까 원온시킨다고 날리시면 풍당합니다. 편하게 200야드만 치시면 굴러서 230야드정도 나가니깐, 세컨샷 130야드 정도 남네요. 해저드 생각말고 편하게 세컨치시면 간단히 투~~~~온. 그린별로 어렵지 않으니 투펏하면 나이스 파!! 기분 좋게 담홀로 넘어가자구요.~~



2번홀: 파인벨리

내리막 파3 홀이구요, 홀인원 잘나올만큼 공만 잘 맞추면 아주아주 쉬운 홀입니다. 그린앞에 해저드 있구요, 멋진광경 천천히 즐기면서 어깨힘 빼고 편하게 치시면 되요. 거리는 150야드정도되지만 내리막이니깐, 한클럽작게 잡으시고 굿~~샷. 앗!!!! 뒤땅치셨다구요?? 역시 해저드가 무섭긴 하나보네요. 해저드만 있으면 실수하시는 분! 자!! 그럼 여기서 박프로 팁 나갑니다.

레슨팁) 해저드 앞에서의 샷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께 해저드는 아무리 이빠도 밍게 보이죠.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해저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은 물에 빠질까봐 몸이 긴장하거나 경직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한 클럽 길게 잡고 항상 거리보다 크게 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린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나, 일단 자주 오버 시키다보면 해저드를 넘겨야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죠. 그렇게 되면 해저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볼을 칠 수 있게 됩니다. 해저드가 있는 홀에서의 샷은 항상 긴 클럽을 잡고 오버시킨다는 마음으로 ~



3번홀: 스페니쉬 베이

오른쪽 도그렉 파 5홀입니다. 역시 이 홀도 그린우측으로 해저드가 있어요. 씨밋포인트 골프장은 세계에서 유명한 코스의 유명한 홀만 18홀 그대로 옮겨서 디자인되어있기 때문에 각 홀이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략해야죠... 티샷은 편안한 홀입니다. 아무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날리시면 되구요,,, 세컨샷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측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만 치시면 안전한 서드샷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해저드를 잘 피하셨다면 남은 거리 100야드 안쪽이죠. 웨지샷 잘 맞으면 버디도 가능하겠네요. ㅋㅋㅋㅋ



4번홀: 오크몬트

왼편으로 벙커가 길~~게 늘어진 파 4홀입니다.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흑이나 땡겨 맞는 공만 없으면 문안하게 150야드 세컨샷 지점 확보가능하구요, 8번또는 7번 치시면 무난히 그린온 되겠네요. 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뒷핀 일 경우, 1클럽 더 보셔야 되는 홀입니다. 그린의 땅콩모양으로 조금 길기 때문에 핀 위치에 따라 30야드까지 차이 나는 것이 이 홀의 주요 공략법입니다.





5번홀: 시네크힐스

왼쪽 도그렉 파5 홀입니다. 멀리 보내려고 지름길을 택하시면 큰일나는 홀이죠. 티박스에서 보이는 것 보다 왼쪽은 공간이 없고, 오히려 우측이 상당히 넓어요 (제 말 꼭 믿으세요). 드로우 구질 이신 분은 우측 벙커보시고, 페이드 또는 슬라이스 나시는 분은 왼쪽 벙커보고 치시면 무난히 페어웨이 안착이십니다. 세컨샷 우드나 롱아이언으로 180야드에서200야드 날리시면 벙커앞 서드샷 지점에 안착되며, 여기서부터 그린까지 약 130~150야드예요. 그린앞과 왼쪽으로 벙커가 도사리고 있으니, 생각보다 조금 크게 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설거지니까 알아서들 하시구요.ㅋㅋㅋ 이쯤되면, 아마 이렇게들 말씀하시겠네요. "원 골프장에 벙커가 이리 많아? 짜증나게....." 그렇죠, 씨밋포인트에는 벙커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벙커 많다고 불만 이신 분은 이미 고수가 아니시네요. 왜냐하면, 씨밋포인트 골프장의 벙커는 대부분 볼 착륙지점과는 별로 상관 없는 곳에 위치한 게 많아요. 그냥 겁만 주는 거죠. 실제로 빠졌다면 상당한 미스샷 인거죠. 물론 잘 치고도 벙커가 많아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페어웨이 벙커샷 좀 알려드릴까요?

페어웨이 벙커

팁) 뭐 없습니다.강 대가리 때리시면 되요!!!



6번홀: 싸이프레스

아....이제 좀 어려운 홀에 왔습니다. 여긴 그냥 보기 천다고 생각하세요. 욕심 내봐야 소용없어요. 저도 이 홀은 보기 많이 해요... 파3홀인데 거리가 길거든요, 오르막에 195야드니깐 210야드는 쳐야죠. 근데 우측은 완전 다 해저드고, 그린왼쪽은 다 벙커예요. 쫘 짜증나는 홀이죠. 자신 있는 분은 롱아이언 도전하시고, 내기 하시는 분 압싹하게 미들아이언으로 끊어가서 파하면 땡큐,,, 보기해도 그냥 저냥 만족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실수할거예요. 슬라이스 홀이니깐, 약간 왼쪽으로 공략하시면 좀 나을겁니다. 말나온 김에, 슬라이스홀 구분법 알려드릴까요?

슬라이스 홀 구분법)

티박스가 항상 페어웨이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게 아닙니다. 착시현상을 주는건데요. 다음부터는 티샷할 때 티박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뒤에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오른쪽을 많이 향하고 있을 경우, 슬라이스 홀이니까요~~~





7번홀: 베를비치

6번홀 보기를 만회하고 싶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7번홀은 핸디캡1번홀이네요.. 403야드의 파4 홀로 중간에 해저드가 있어서 끊어가셔야 되는 홀이에요. 장타자 분들께는 좀 아쉽게 됐네요. 해저드에서 그린까지 180~200야드 남는 지점이 세컨샷 하실 곳인데, 야자나무가 앞을 가리고 있어 그린의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그린 양 옆, 뒤에 벙커까지 있습니다. 뭐 어찌겠어요?? 여기도 그냥 보기한다는 마음으로 공략하시죠.. 찼



8번홀: 카노스테

드디어 회심의 일타를 날릴 만만한 파3가 왔네요. 140야드 정도의 아무 장애물이 없는 무난한 파3홀입니다. 그린경사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니, 이왕이면 그린 우측을 공략하시면 버디도 가능한 홀입니다. 나이스 버디~~~하고 전반 막홀로 넘어가시죠.





9번홀: 소토그랜드

클럽하우스의 웅장한 경관이 바라보이는 전반 마지막 홀 파 5입니다. 우측으로 길게 해저드가 그린까지 연결되는 홀인데요, 해저드 시작점까지 거리가 꽤 되니, 장타자 분들은 페어웨이 좌측공략, 다른 분들은 편안하게 가운데 보고 지르시면 됩니다. 세컨샷 역시 장타분 들은 그린 앞 100야드 지점의 벙커를 넘기시면 투온까지 가능하구요 안전하게 가실분들은 벙커 앞까지 160~180야드만 치시면 안전한 어프로치 거리 남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들 설거지 하시구요. 파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홀이니 주변 경치 감상하시면서 편안하게 치시면 됩니다. 9홀 마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후반 넘어가시기 전에 클럽하우스 한국식당에서 맥주한잔 하면서 쉬었다가 넘어가시죠, 이곳 씨밋포인트 골프클럽은 한국인 프로 두 분이 항상 상주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 이것저것 물어보셔도 됩니다.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 되겠네요.



10번홀: 모쿨랜드힐

후반 첫 번째 파 4홀입니다. 우측은 OB지역이니, 무조건 좌측으로 공략하셔야 합니다. 그린앞 우측 해저드가 있지만 거리상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티샷이 잘되셨다면 핀까지 남은 거리 대략 120야드 정도되겠네요. 잘하면 후반 첫홀부터 버디? 욕심내지 마시고 파 만하는걸로....





11번홀: 로얄 멜버른

드디어 장타분들 힘 좀 쓸만한 홀에 도착하셨네요. 파4, 434야드로 설정된 홀입니다. 앞바람이 불때가 많은 홀이라, 실제로는 460야드정도 되겠는데요, 저는 평균 세컨에서 180야드정도가 남는 홀이기도 합니다. 평균드라이버 비거리 220정도 나가시는 아마추어 분들은 거리가 조금 길기 때문에 세컨에서 우드샷을 한번 더해야 그린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홀이네요. 다른 장애물은 없기 때문에 비거리만 제외하면 무난한 파4홀입니다.



12번홀: 머거스타 네셔널

그린앞 좌측으로 해저드가 있는 파 4 홀입니다. 해저드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거리가 280야드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티샷 하세요. 상대적으로 우측에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스샷 하시더라도 가운데서 약간 좌측으로 공략하시는편이겠습니다. 약간 포대그린이니까, 세컨샷은 조금 길게 치시면 그린공략에 도움이 되겠네요.





13번홀: 머거스타 네셔널

아마추어 분들에게 조금 까다롭게 보이는 파3 홀입니다. 일단 거리가 170야드정도에 항상 앞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고, 그린앞이 바로 해저드, 그린 뒤는 벙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롱아이언을 치기에는 좀 부담이죠. 다행인건, 그린이 넓기 때문에 좌우측 공간활용이 좋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해저드 팁을 잘 상기하시고 거리만 맞춘다면 파확률이 높은 홀이기도 합니다. 제발 해저드 앞에서 풀지들 맙시다.~~~



14번홀: PGA WEST

재미있는 파5홀입니다. 티박스 에서부터 그린까지 왼편으로 길다란 벙커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대단하죠?? 티박스부터 그린까지 올 벙커라니,,, 그것도 파5홀에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는 홀입니다..... 왜냐..... 우측으로만 계속 가면 되니까요.ㅋㅋㅋ 참 쉽~~~쥬?





15번홀: 세니놀 #6홀

자 이제 승부처 4홀 남았습니다. 잃으신 분들 땡땡땡 치실 수 있는 마지막 네 홀중 첫 홀에 오셨네요. 그리 길지 않은 350야드 파4 홀입니다. 세컨샷에 주의를 요하는 홀인데요, 그린 뒤가 바로 숲속이라 거리 맞추는것이 제일 중요한 공략법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린 우측이 넓기 때문에 무리한 핀 공략보다는 그린 우측으로 거리만 맞추면 투펏하기 아주 무난한 홀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16번홀: 세인트 앤드류 (스코틀랜드)

항아리 bunker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파5홀입니다. 마치 브리티쉬 오픈이 열리는 세인트 앤드류스의 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실텐데요. 맞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의 14번홀을 그대로 따온 파5 홀입니다. 생각보다 버디가 쉽지 않은 홀인데요. 항아리 bunker만 피해서 안전하게 끊어 가시는 것이 주요한 공략법입니다. 욕심 내는 동반자 분들이 한번에 망할 수도 있는 홀이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도....





17번홀: 윈드훓

핀 위치에 따라 난이도가 갈리는 150야드의 파3 홀입니다. 앞핀과 뒷핀에 따라 두 클럽 까지 길게 잡아야 하는 홀인데요, 앞핀 일 경우, 야디지 북 그대로 150야드 공략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핀 일 경우, 170야드까지도 보시고 공략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은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바람이 부는 홀이니, 공략에 참고 하시구요.



18번홀: 세인트 앤드류 (스코틀랜드)

이제 써밋포인트 골프클럽 마지막 18번 홀에 도달하셨네요. 우측벙커만 피하신다면 클럽하우스의 멋진 경관을 구경하시면서 그린 공략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실 겁니다. 세컨샷 또한 그린우측으로 공략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그린우측이 넓기 때문에 좌측 미스샷만 없다면 설거지 정도 남겠네요. 앞핀의 경우, 그린이 어렵지 않으니 무난히 파로 마치실 수 있는 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반자 분들과도 즐거운 악수 한번씩 하시고. 조금 안 맞은 분들은 다음기회를 노력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반라운드를 하며 필드레슨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며 적어본 써밋포인트 골프클럽의 코스공략법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라운드, 즐거운 추억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UMMIT POINT

GOLF RESORT